

# 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 차 례

1. 202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 및 특징
2. 대선의 주요 쟁점
3. 마크롱 2기 정부의 정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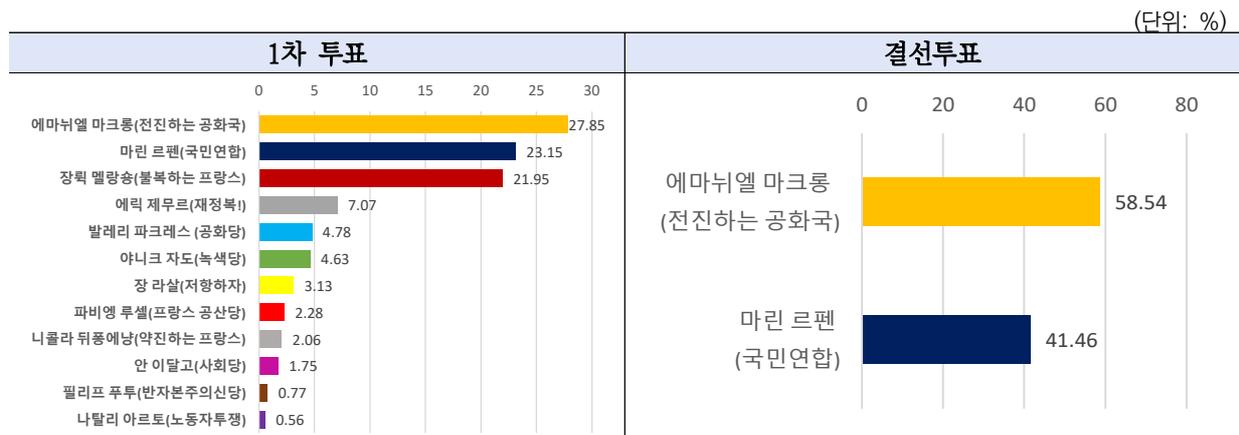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 2022년 4월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현 대통령이 58.54%를 득표하여 41.46%를 얻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함.
  - 4월 10일(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각각 27.85%, 23.15%를 득표하여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음.
- ▶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도 신진 정치세력’의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정치 양극화와 대중의 정치 불신 또한 드러남.
  -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격차가 17%p로 나타나, 2017년 대선 결선투표 당시 양 후보의 격차인 32%p 대비 줄어들며 극우세력이 약진함.
  - 그 외에도 극좌인사 장뤼크 멜랑송(Jean-Luc Mélenchon) 후보와 극우인사인 에릭 제무르(Eric Zemmour)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됨.
  - 결선투표에서 백지투표가 6%(약 220만 표) 가까이 발생하여 반정치 정서가 간접 표출됨.
- ▶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연금제도 개혁,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짐.
  -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함.
  -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환경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이 하락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움.
-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제제도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추진력 확보 여부는 6월 실시 예정인 총선 승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연금개혁 및 급격한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2018년 노란조끼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6월에는 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가 마크롱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1. 202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 및 특징

- 2022년 4월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전진하는 공화국(LREM: La République en Marche)’의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현 대통령이 58.54%를 득표하여 41.46%를 얻은 ‘국민연합(RN: Rassemblement National)’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함.
- 앞서 4월 10일(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각각 27.85%, 23.15%를 득표하여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함(프랑스 정치 및 선거제도의 특징은 [글상자 1] 참고).
  - 르펜 후보는 2017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결선투표까지 진출하였으며, 극우 후보로서는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 마린 르펜 후보의 아버지)의 200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결선 진출임.
  - 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에 이어 ‘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의 장뤼크 멜랑송(Jean-Luc Mélenchon)과 ‘재정복!(Reconquete!)’의 에릭 제무르(Eric Zemmour) 후보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함.
- 투표 참여율은 1차 투표가 73.69%, 결선투표가 71.99%를 기록하여 2017년 대선 대비 감소함.
  - 결선투표 기준 투표율은 1969년 결선투표(68.9%)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그림 1. 2022 프랑스 대선 1차 및 결선투표 결과



주: 유효투표(무효, 백지투표 제외) 중 각 후보의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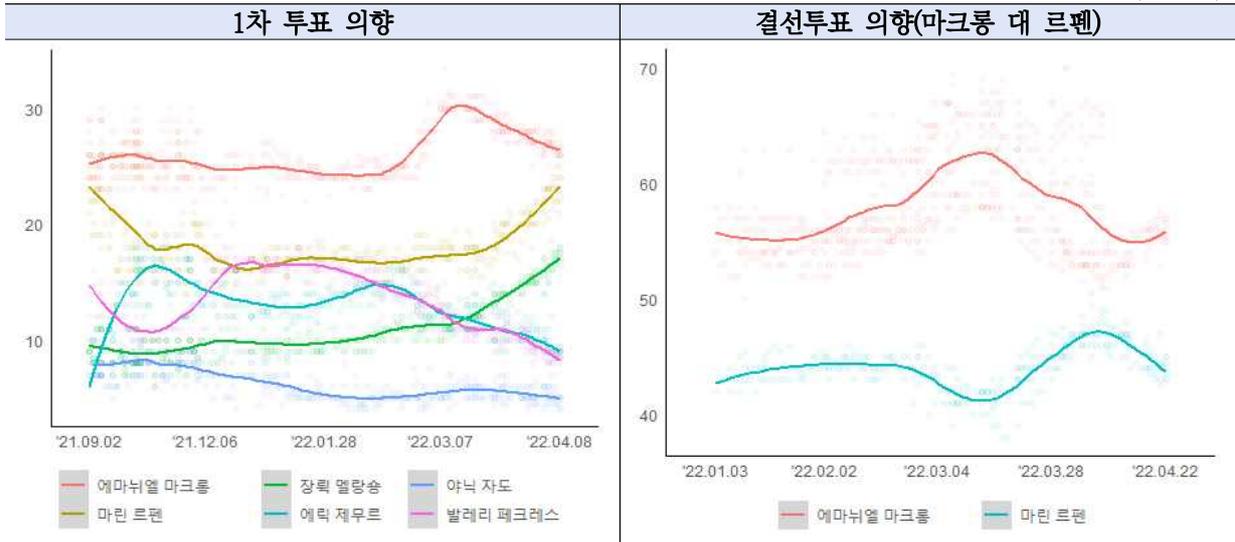
자료 <https://www.resultats-elections.interieur.gouv.fr/presidentielle-2022/index.html>.

- 2017년 출범한 1기 마크롱 정부는 사회당 및 공화당 등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를 흡수하며 시작하였으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유류세 인상 등 급격한 개혁 추진으로 정권 초반부터 지지율이 급락함.
- 특히 2018년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안에 반대하여 노란조끼 운동(Gilet Jaune)이 발생하였으며, 이내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격화되며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바 있음.
- 2020년 초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정적 의견이 임기 중 우세하였음.

-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또한 존재함.<sup>1)</sup>

그림 2. 2022 프랑스 대선 투표 의향 추이

(단위: %)



주: 각 점은 여론조사 시점의 각 후보 지지율을 나타내며, 선은 각 후보 지지율의 지역회귀(Local Regression) 추세를 나타냄.  
자료: NSPPOLLS, <https://github.com/nsppolls/nsppolls>(검색일: 2022. 4.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글상자 1. 프랑스 정치제도 및 대통령선거 제도의 특징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이원집정부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원내에서 추천되는 총리가 행정수반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임. 이러한 특성으로 대통령의 당적과 하원 다수당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당적과 다수당이 다를 경우(‘동거정부’, cohabitation)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이 약화되며 권력이 사실상 총리와 다수당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함. 2000년 이전까지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원 선거가 중간선거의 역할을 하였으며, 임기 중반에 인기가 떨어진 경우 총선으로 인해 동거정부로 집권 후 반을 이끌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함. 그러나 2000년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이 동거정부를 피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줄였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대통령선거와 하원의회 총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고 있음.

헌법상 프랑스 대통령의 선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 번 연임을 한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없고, 최소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음.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1962년 이후 현재까지 3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음.

프랑스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대통령선거의 경우 1차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표 중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당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2주 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됨. 결선투표 제도에서는 1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고려를 하지 않고 각자의 지지자를 향해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힘. 그러나 2회 투표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소요, 후보자 난립 등의 문제는 결선투표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자료: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Comment caracteriser le regime politique de la Ve Republique?” <https://www.vie-publique.fr/fiches/38013-comment-caracteriser-le-regime-politique-de-la-ve-republique> 및 오일환(2005),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분석: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모든 자료 검색일: 2022. 4. 29) 바탕으로 저자 정리.

1) Pierre Rosanvallon(France Inter 인터뷰), <https://www.franceinter.fr/emissions/l-invite-de-8h20-le-grand-entretien/l-invite-de-8h20-le-grand-entretien-du-vendredi-15-avril-2022>(검색일: 2022. 4. 25).

■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좌·우 진영 후보의 분열이 이어지며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우위가 지속되었음.

- 르펜 후보가 지속적으로 마크롱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지지율이 증가함.
- 르펜 후보와 같은 극우 계열의 에릭 제무르 후보가 2021년 말 뒤늦게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여 르펜 후보의 지지율을 일부 잠식
-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좌파 진영은 단일 후보를 배출하지 않고 녹색당 계열과 극좌 후보 등이 난립하게 되면서 지지율 결집에 실패함.
- 한편 르펜 후보는 선거 막바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과거 친러시아 및 친푸틴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함.<sup>2)</sup>

■ 이번 선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도 신진 정치세력’이 정권 유지에 성공함.

- 2017 대선과 마찬가지로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공화당 및 사회당 등 기성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흡수하며 입지가 굳어짐.
- 공화당의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현 일드프랑스(Ile-de-France) 광역의회(Conseil régional) 의장(2015년~) 후보는 1차 선거에서 4.78%를 기록하여 선거기탁금 보전 선인 5% 득표에 실패함.
  - 주요 언론은 페크레스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 정책과 차별화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sup>3)</sup>
- 사회당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현 파리시장(2014년~)은 1차 투표에서 1.75%만을 득표하여 전체 10위에 그쳤으며, 소속 정당이 위기에 봉착하게 됨.

■ 또한 르펜 후보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치 지형의 극단화와 대중의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드러남.

-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격차가 17%p로 나타나, 2017년 대선 결선투표 당시 양 후보의 격차인 32%p 대비 줄어들며 극우세력이 약진함.
- 르펜 후보 외에도 1차 선거 3위인 멜랑송 후보는 반자본주의 성향의 극좌인사이고, 4위의 제무르 후보는 반(反)이민을 주장하는 극우인사로 극단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 한편 결선투표에서는 백지투표(vote blanc, 무효표와 별도로 집계)가 6%(약 220만 표) 가까이 발생하여 국민의 반(反)정치 정서 또한 간접적으로 표출됨.

2) LeMonde(2022. 4. 20), “Quels sont les liens de Marine Le Pen avec la Russie de Vladimir Poutine?” [https://www.lemonde.fr/les-decouverts/article/2022/04/20/quels-sont-les-liens-de-marine-le-pen-avec-la-russie-de-vladimir-poutine\\_6122903\\_4355770.html](https://www.lemonde.fr/les-decouverts/article/2022/04/20/quels-sont-les-liens-de-marine-le-pen-avec-la-russie-de-vladimir-poutine_6122903_4355770.html)(검색일: 2022.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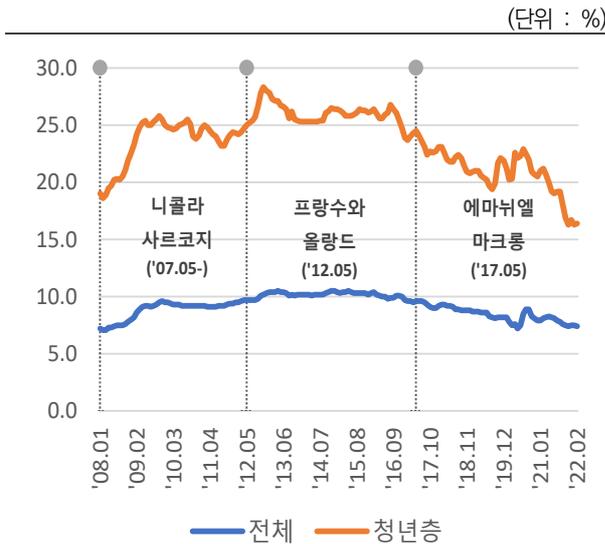
3) BFMTV(2022. 4. 11), “‘Elle a été incapable d’incarner une seule idée’: les raisons du cinglant échec de Pécresse.” [https://www.bfmtv.com/politique/elections/presidentielle/les-electeurs-ont-besoin-qu-on-leur-raconte-une-histoire-les-raisons-du-cinglant-echec-de-pecresse\\_AN-202204110099.html](https://www.bfmtv.com/politique/elections/presidentielle/les-electeurs-ont-besoin-qu-on-leur-raconte-une-histoire-les-raisons-du-cinglant-echec-de-pecresse_AN-202204110099.html).

## 2.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

■ [경제정책]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기간 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 등으로 100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자평하였으나,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의 무리한 환경정책 추진 및 집권 기간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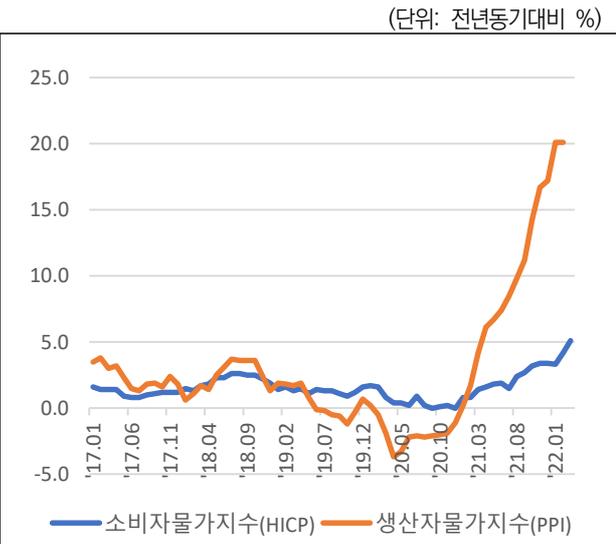
- 경제정책에서 양 후보 모두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인세 일부 폐지 및 상속세 완화를 공약하는 등 친(親)기업 성향은 대체로 일치함.
  - 르펜 후보는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세금감면 및 주거보조금 지원 혜택을 적극 주장한 것이 특징
-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중 적극적인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창출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회복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였다고 자평함.
  - 실제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2년 2월 기준 7.4%, 청년실업률은 16.4%로 마크롱 대통령 임기 중 꾸준히 감소
  - 그러나 실업률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이탈과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깡 이코노미(geek economy) 분야 비정규 고용 및 소규모 자영업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 또한 존재<sup>4)</sup>

그림 3. 프랑스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주: 청년층은 15~24세를 말함.  
자료: Eurostat, "Unemployment by sex and age? monthly data"(검색일: 2022. 5. 2).

그림 4. 프랑스의 물가상승률



자료: Eurostat, "HICP - monthly data(annual rate of change) 및 Producer prices in industry, total - monthly data" (검색일: 2022. 4. 29).

4) Le Monde(2022. 3. 18), "Chomage : le bilan d'Emmanuel Macron est-il aussi bon qu'il le pretend?"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2/03/18/chomage-le-bilan-d-emmanuel-macron-est-il-aussi-bon-qu-il-le-pretend\\_6118172\\_4355770.html](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2/03/18/chomage-le-bilan-d-emmanuel-macron-est-il-aussi-bon-qu-il-le-pretend_6118172_4355770.html)(검색일: 2022. 4. 29).

- [환경정책]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르펜 후보는 신규 친환경발전소 건설 중단 등 친환경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을 함.
  -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중 '국내선 항공편 대폭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 및 회복법(Loi climat et résilience)」을 통과시켰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
    - 그러나 2018년 환경 대응을 명목으로 유류세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란조끼 운동이 발생하는 등 사회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음.
  -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의 환경정책이 물가상승과 구매력 하락을 불러왔다고 비판함.
    - 또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목표 취소, 프랑스 본토 내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중지 등 친환경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
  - 양 후보 모두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고 적극 확대를 공약한 것은 공통점임.
  
- [국제/유럽연합]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틀 안에서 프랑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르펜 후보는 유럽연합 개혁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 및 이민통제 주권을 되찾겠다고 공약함.
  -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독자 회담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등 유럽연합 틀에서 벗어나 자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성향 또한 드러냄.
  - 르펜 후보는 개별 회원국의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럽연합이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경 및 이민통제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 르펜 후보는 그동안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으나, 브렉시트 및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반EU 정서가 크게 악화되자 탈퇴 대신 개혁으로 공약을 변경

표 1. 마크롱 및 르펜 후보의 주요 공약 비교

정책 분야	세부분야 (현행)*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마린 르펜 (Marine Le Pen)
정치제도	대통령 임기 확대 (현행 5년 중임)	7년제 긍정 검토	7년 단임제 추진
	의원 비례대표 확대	의석수의 20%를 비례대표에 할당(2017년 대신 당시 공약사항-미이행)	의석수의 2/3를 비례대표에 할당
사회보장제도	퇴직연령 (현행 62세)	64~65세로 상향	현행 유지
	최소 퇴직연금 (현행 700유로 선)	최소 금액 1,100유로	최소 금액 1,000유로, 물가상승 연동
사회정책	안락사 (특정 조건하 연명치료 중단 권리)	국민의견 수렴 후 결정	현행 유지
	낙태 허용범위 (현행 임신 14주 이내)	현행 유지	임신 12주 이내로 강화
	정치-종교 분리	정치-종교 분리 원칙 재확인	공공장소 내 종교적 표시 금지
국제/안보	유럽연합	'전략적 자율성' 및 군사력 확보를 통한 강한 유럽 추구	개별 회원국의 주권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
	국경	생젠 지역 및 유럽국경관리청(Frontex) 강화	개별국의 국경통제권 재확보
	러시아	대러 제재 지속	외교적 해결 노력
	우크라이나 난민	난민 수용	난민 수용
	NATO	NATO 개혁	NATO 탈퇴
경제정책	상속 공제액 (현행 십만 유로)	직계존속 상속 공제액 15만 유로로 상향	직계존속 상속 공제액 30만 유로로 상향
	소득세 개편	모든 동거 형태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30세 미만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 세금 면제
	법인세	기업부가가치부담금(CVAE) 폐지	사회연대세(C3S) 폐지
환경/에너지	2050년 탄소제로 목표	2050년 달성	매년 조정 필요
	친환경 발전	2050년까지 풍력 발전단지 50개소 건설	프랑스 본토 내 풍력 및 태양광 신규 건설 중단
	원자력발전소	원전 6기 건설 및 8기 추가 건설 검토	원전 20기 추가 건설
	내연기관 자동차 (EU, 2035년 퇴출 목표)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자동차 리스 제도 도입으로 전환 유도	내연기관 판매 중단 반대

주: 제도 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

자료: Le Monde(2022. 4. 18), "Comparez les programmes d'Emmanuel Macron et de Marine Le Pen pour l'élection présidentielle."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2/04/11/election-presidentielle-2022-comparez-les-programmes-d-emmanuel-macron-et-de-marine-le-pen\\_6121622\\_4355770.html](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2/04/11/election-presidentielle-2022-comparez-les-programmes-d-emmanuel-macron-et-de-marine-le-pen_6121622_4355770.html)(검색일 2022. 4. 20) 바탕으로 저자 요약 및 정리.

### 3. 마크롱 2기 정부의 정책 전망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기존 친기업 노선을 바탕으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정책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에 ‘재도약 계획(Plan de Relance)’, 2021년에는 ‘프랑스 2030(France 2030)’ 계획 등을 발표하며 기업 투자 유치, 산업의 탈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등의 우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프랑스 및 유럽 차원의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유도 및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여러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공정의 국내 생산을 요구한 바 있음.
-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전환 기조가 계속되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강화될 예정임.
  -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 계획의 일부로 2030년까지 소형원전(SMR) 개발에 약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퇴직 및 연금 제도 개혁, 친환경 전환 등은 대중의 반대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 소통과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퇴직연령 65세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약 77%로 나타나 빠른 정책 추진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sup>5)</sup>
- 또한 기존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물가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의 추진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018년 노란조끼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극우 후보 지지로 돌아선 노동자 및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는 2022년 6월 예정된 총선 승리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만약 여당(LREM)이 총선에서도 압승할 경우 국내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각종 현안에 대한 프랑스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 유럽연합 내 프랑스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
- 다만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극단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어,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극좌 및 극우 정당들과 협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LREM)의 지지율이 1위를 유지하고 있어 6월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sup>6)</sup>

5) Le Journal de Dimance(2022. 4. 13), “SONDAGE. 77 % des Français estiment que Macron doit retirer de son programme le projet de retraite à 65 ans,” <https://www.lejdd.fr/Politique/sondage-77-des-francais-estiment-que-macron-doit-retirer-de-son-programme-le-projet-de-retraite-a-65-ans-4105564>(검색일: 2022.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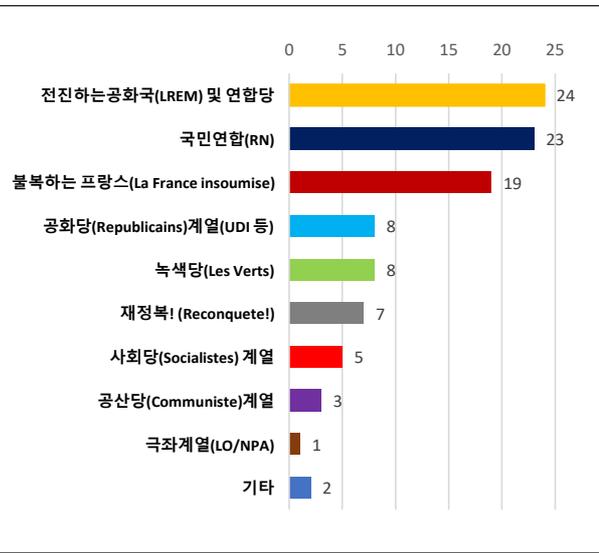
- 그러나 현재 7석인 국민연합(RN) 의석수 또한 최대 105석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KIEP**

표 2. 프랑스 하원의회 구성

교섭단체명	의석	비중(%)
진진하는 공화국(LREM)	267	46.3
공화당(Republicains)	101	17.5
민주운동(MoDem)	57	9.9
사회당(Socialistes)	28	4.9
함께행동(Agir Ensemble)	22	3.8
민주독립연합(UDI)	19	3.3
자유와 영토 (Libertés et Territoires)	18	3.1
불복하는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17	2.9
민주 및 공화좌파(Gauche démocrate et républicaine)	15	2.6
무소속 (국민연합 7석 포함)	23	4.0
공석	10	1.7
합계	577	100.0

주: 여당은 굵은 글씨로 처리.  
자료: 프랑스 하원 홈페이지,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instances/liste/groupes\\_politiques/effectif](https://www2.assemblee-nationale.fr/instances/liste/groupes_politiques/effectif) (검색일: 2022. 5. 1).

그림 5. 6월 예정 총선 투표 의향 추이



주: 2022년 4월 24일, 1차 투표 의향 기준.  
자료: harris interactive, "Barometre d'intentions de vote aux election legislatives de 2022 - vague 45," [https://harris-interactive.fr/opinion\\_polls/barometre-dintentions-de-vote-aux-elections-legislatives-de-2022-vague-45/](https://harris-interactive.fr/opinion_polls/barometre-dintentions-de-vote-aux-elections-legislatives-de-2022-vague-45/) (검색일: 2022. 5. 2).

6) harris interactive, "Barometre d'intentions de vote aux election legislatives de 2022 - vague 45," [https://harris-interactive.fr/opinion\\_polls/barometre-dintentions-de-vote-aux-elections-legislatives-de-2022-vague-45/](https://harris-interactive.fr/opinion_polls/barometre-dintentions-de-vote-aux-elections-legislatives-de-2022-vague-45/) (검색일: 2022. 5. 2).